

민주 경선룰 논의 시작부터 ‘배격’

당헌당규강령위 회의…“중립성 훼손” 박원순 대리인 불참
특정후보 유리 ‘모바일 투표’ 반대…개헌 문건 갈등도 여전

대선 후보 경선룰 논의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초반부터 배격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당내 대선주자들의 대리인들을 불러모아 경선규칙 조율에 돌입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 대리인이 지도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불참하는 등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결선투표제나 모바일 투표 등의 도입 여부를 두고 주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금태섭 의원과 한정애·홍익표·박정·신동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 간 회의가 끝난 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측 등 대권 주

자 대리인들이 회의장에 모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위원회에 논의를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 측 대리인은 회의 개시 시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지금은 경선룰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더군다나 최근 불거진 ‘개헌 보고서’ 논란을 봐도 지도부가 중립적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룰은 후보자끼리 합의하는 게 맞고, 새해 벽두부터 당 대표가 경선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의 촛불민심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당 지도부를 공격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박 시장 측 대리인의 참여 없이 진행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은 후보자 대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라며 “오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선 룰에 대해서는 주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대표적으로 당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주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촉박한 경선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도 일부 주자들이 “문 전 대표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더라도 반영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릴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주자들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계획대로 설 연휴 전에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개헌 보고서’를 두고 ‘비문’(비문재인계) 진영 중진들이 추미에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당내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계파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룰 논의가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면 내용이 거세질 수 있다.

한편 당헌당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기탁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예비경선에서는 5000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감액된 것”이라며 “본 경선에서는 3억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무죄’

박선숙·김수민 1심 선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세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

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수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광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온 박원순 “野 통합 경선 통한 촛불 공동정부 수립돼야”

文 호남 분열·당 패권운영 책임
완전국민경선제로 국민 뜻 반영
3기 민주정부만이 기득권 철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한 야권의 대권 후보 공동 경선을 통한 촛불 공동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세력의 연대와 협력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패권주의와 다르지 않다”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대통령선거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야권의 공동경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권이 분열된 경우에는 연대를 이뤄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며 “과거 공동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사례도 있고 법률상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합종연횡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결선투표도 하려는 것 아니냐”며 “결선투표에 후보들 대부분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경선룰에 대해서는 “국민완전경선 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고 역동적이며 감동적인 경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선거에서 경선룰은 후보자간 합의로 정해졌다”면서 “당이 나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1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도란도란 북카페’를 찾아 ‘원순씨에게 듣는 마을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주민 50여 명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광산구와 서울의 각 구에서 구청장들이 실험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회적 공동체들이 대한민국

박 시장은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호남분열과 당의 패권적 운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강하게 견제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과 문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시절 모든 선거를 지면서 호남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 때문에 당도 쪼개졌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호남의 단결을 위해서는 호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세론에 안주한 채 호남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놓고도 “보름달은 이미 찼으니 이제 기울고 조송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는 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시장은 이어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 때”라며 “촛불

공동 정부를 통해서만 과거 두 차례 민주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적폐청산과 기득권 철폐, 99대 1 불평등 사회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광주 광산구청과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우호교류협약을 했으며 광산구 비아동 주민들이 세운 사회공동체인 ‘도란도란’ 북카페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환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원 민심 잡기’ 나선 문재인

충남 위안부 피해자 묘소 참배·재래시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충남 천안에서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참배하고 전통시장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의 동산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찾았다.

망향의 동산 위령탑에서 헌화·분향한 문 전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묘소에서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속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돈 10억여만 받았을 뿐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 대표적인 야당 원로인 황규영 씨 자택을 찾아 차담을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총청에서 이겼다. 총청에서 이겨야만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분영 천안시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인 성환이화시장 곳곳을 둘러 보며 상인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연합뉴스

유승민, 25일 대선 출마 선언

바른정당 잠룡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이 오는 25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출마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해왔다. 이제 저의 출마 결심을 국민께 밝히고자 한다”면서 “오는 25일 바른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는 추후 알려드리겠다”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선출마 계획을 발표한 것

은 유 의원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경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그동안 견해를 밝힌은 각종 정책 아젠다를 포함한 큰 틀에서의 공약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이른바 이번 주 내 캠프 진용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캠프에는 전·현직 의원 2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활동한 원내부대표단 그룹이 대표적이다. 재선의 조해진 전 의원을 필두로 김희국·이종훈·민현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이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이 13억7천2백 ▶ 최저가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이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이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이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이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이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이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층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2호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는 매매 60억(협의를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